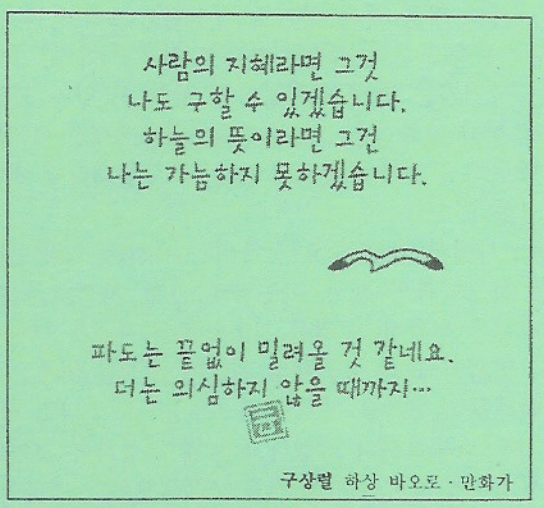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제28권 43호(가해) 2008·9·21

[묵상]



▯ 백삼위 순교 성인 ▯

순교로 빛을 밝힌 백삼위 성인
오롯이 바친 넋에 새순이 돋아
순례의 교회 안에 큰 나무 되니
님 따른 그 생애가 거룩하여라.
영원히 받으소서 희망의 찬송을
이름 모를 순교자여 새 빛 되소서.
이 땅에 빛을 주신 야훼 하느님
태초의 혼돈에서 창조 이루듯
한민족 새 얼속에 나게 하시니
구원의 기쁜 소식 누리 비추네.
이백년 이어받은 신앙의 유산 기리며
온 세상에 드높이리 성삼의 영광.
생명의 빛을 받아 새로 난 겨레
일치의 성령 안에 함께 모여서
복되신 마리아의 삶을 따르니
복음을 살아가는 증인이어라.
만백성 찬양하라 사랑의 승리 기쁨을
이 땅 위에 빛나시는 하느님 이름.

◆ 조화선 수녀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오전 8:30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오전 7:30
	주일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미사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종 강
	레지오 마리애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오전 9:30
	성 시 간 (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성령 기도회	오후 8: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종 강
	M. E. Sharing(3째주)	오후 7:00
	울뜨레아 (4째주)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오후 6:00
	배론 청년모임	오후 5:00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오전 중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00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오후 1:00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후 1:00
	가정의 날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최효선 안젤라, 김순성 마리아, 방 로사, 제시 로드리게스, 이숙자 수산나, 엄은섭 도로테오, 김금란 수산나
	(생)김풍길 바오로와 재희 모니카 가정, 빈체시오회의 모든 회원들
주 일 낮미사	(연)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박석규 베르나르도, 정진표, 이현호 요한, 김주일 미카엘, 최건 바실리오, 고준희 제임스,
	(생)장정숙 크리스티나, 이종민 요셉, 김풍길 바오로 가정, 이경용 야고보와 윤조 글라라, 권진열 피데스와 병연 리디아 가정, 이 마태오, 이종원 베드로와 아녜스 가정, 엄베드로, 엄정자 분다, 지경수 마태오, 김화현 데레사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3,1-9
화 답 송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시온의 귀양을 풀어 주께서 돌려보내실 제, 우리는 마치 꿈만 같았나이다. 그때에 우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흥겨운 노랫가락 혀에 넘쳤나이다.⊙ ○그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하느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해주셨다.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못견디게 기뻐했나이다.⊙ ○주여, 사로잡힌 우리 겨레를, 남녘땅 시냇물처럼 돌려주소서.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뿌릴 씨를 가지고 울며가던 그들은, 곡식단 들고 올 제 춤추며 돌아오리이다.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못견디게 기뻐했나이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31ㄴ-39
복 음 환호성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 음	루카(Luke) 9,23-26
영성체송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39	343
봉헌	268	269,214
성체	291	284,295
파견	345	336

18. 치유의 성사 -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 고해성사를 위한 합당한 준비

고해성사는 통상 여섯 단계로 거행된다. 그것은 고백자의 다섯 가지 행위와 사제의 **사죄경**으로 이루어진다. 고백자의 행위는 **성찰**(지은 죄를 모두 알아냄), **통회**(진정으로 뉘우침), **정개**(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함), **고백**(사제에게 죄를 고백함), **보속**(죄를 용서받은 대가로 선행함)이다. 고해성사에 임하는 고백자는 먼저 고해성사를 행한 지 얼마 되었는지를 말한다. 현행 교회법은 신자들이 일 년에 적어도 한 번 고해성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탄과 부활대축일 전에 꼭 받기를 권한다.

고해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통회(뉘우침)이다. 우선 자신을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서 범한 잘못을 성찰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을 더럽히고,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친교에 손상을 입혔으며,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음을 아프게 뉘우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이다. 고백자는 사제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여야 한다. 자신의 죄를 전부 고백한 다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하고 말한다. 이어 사제의 훈화 말씀과 정해 주는 보속을 잘 기억한다. 사제의 사죄경으로 죄를 용서받은 고백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정해준 보속을 행한다. 보속은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끼친 손해를 갚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생활 태도를 다시 갖추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속을 행하지 않고 다음 고해성사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일상생활에서 빚어지는 작은 죄(소죄)는 모든 전례행사에서 행하는 참회예절이나 개인적으로 행하는 양심 성찰과 참회의 기도로써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십계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중죄(대죄)를 지었을 때나, 작은 죄일지라도 습관적이며 의식적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중죄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중대한 일을 완전히 의식하면서 고의로 저지른 모든 죄를 말한다. 만일 고해성사를 받을 때 기억에 떠오르는 중대한 죄들 가운데 어느 것을 고의로 숨기거나 아무런 통회도 하지 않고 고백한다면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이를 모고해(冒告解)라고 한다.

▶ 대사(大赦, Indulgence)

선한 뜻을 지닌 신자가 기도, 선행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대사(大赦)를 얻을 수 있다. 대사는 이미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느님 앞에서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 곧 잠벌(暫罰)을 사면 또는 면제하여 주는 은사(恩赦)로서, 부분 사면을 수여하는 '한대사'와 전체 사면을 수여하는 '전대사'가 있다. 대사는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얻어 줄 수도 있다. (◆계속 - CBCK 제공)

오늘을 살아가는 순교 정신

호주 시드니에서 있었던 세계 청년 대회(7월15일~20일)를 마치고 생드니 교구의 교구장이신 오영진(Olivier de Berranger) 주교님과 청년 120여 명이 프랑스로 귀국하는 길에 열흘 간의 일정(7월21일~31일)으로 한국에 들렀습니다. 1976년부터 17년간 서울 구로와 영등포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을 하셨던 오영진 주교님은 청년들에게 한국 교회의 역동성을 보여 주고, 1800년대 조선에서 선교하다 순교한 프랑스 파리 외방 전교회 신부님들의 순교 정신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고 싶었습니다. 평화방송·평화신문에서는 명동성당을 방문하는 날, 주교님과 두 명의 청년을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방문단은 오전 덕수궁의 문화체험을 마치고 명동성당에 12시30분에 올 예정이었지만, 교통이 지체되어 오후 1시15분쯤 도착했습니다. 늦게 도착하신 주교님은 죄송하다며, 인터뷰와 방송 녹음을 하기 위해 길 건너편의 평화방송·평화신문 빌딩으로 빠른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송실에 가기 전에, 승강기 안에서 제가 주교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점심 식사를 아직 못하셨으니, 우리가 준비한 샌드위치를 먼저 드시고 인터뷰를 하시죠. 주교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와 청년들이 우리 프랑스 선교사들의 순교 정신을 체험하러 왔는데, 그분들이 겪었을 고생과 고통에 비하면 점심 조금 늦게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송 녹음부터 먼저 합시다.

순교 정신으로 점심의 허기를 이겨 내자는 주교님의 생활에서 살아 숨쉬는 순교 영성은 방송 녹음과 신문 인터뷰가 끝난 후,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함께 나눈 대화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호주에서 세계 청년 대회 마치신 후 바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다시 강행군을 하시는데, 무척 피곤하시겠습니다. 파리 외방 전교회의 선교사들이 사제서품을 받고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역만리 이 곳 조선에서 신앙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쳤던 것에 비하면, 우리들이 한국에서 열흘 간의 일정 동안 잠시 머무르면서 겪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갈매못 순교성지 순례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17년을 살았지만 갈매못 순교성지를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용감하게 순교의 칼을 받은 다블뤼(Antoine Daveluy, 조선교구 5대 교구장) 주교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프랑스 청년들은 이번에 한국 천주교회 역사와 프랑스 선교사들의 순교를 생생하게 배우고 느꼈습니다. 방송국에 녹음을 하기 위해 함께 자리한 프랑스의 앳된 두 청년도 그 옛날 고국의 선교사가 동방의 이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자신들의 신앙 선조들을 본받아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이 이제 가톨릭 신앙의 종가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가슴에도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체험한 순교 정신을 일상의 삶 안에서 살아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신앙의 제단에 바친 수많은 순교자를 신앙 선조로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도 순교 정신이 삶의 현장에서 굳건히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김영춘 베드로 신부<평화방송·평화신문 주간>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덕례 데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배재일 미카엘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정미영 미카엘라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강정헌 시몬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정은 젬마	박혜경 레나타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4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종강 및 개강 안내

- 지난 2월13일에 시작한 수요반 그룹이 루카복음을 마쳤습니다. 다음단계에서는 바오로 서간을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 개강 : 10월15일(수요반), 오전 10시, 회의실
  10월17일(금요반), 오전 9시30분, 강당

* 신청 : 황지영 안젤라 ☎(310)938-8039

◈ 주일학교/한국학교 등록 서두르세요.

- 주일학교 등록비(1년분) : 첫째아이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부터는 무료(9월8일 이후부터는 $10씩 추가)
- 등록마감 : 오늘 주일(21일) *자모회비 : 한 가정당 $40
- LA교구 요청에따라 liability문제로 미등록 학생은 수업 받을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780-0369 강아네스 교장
- 한국학교 등록비(1학기분) : 첫째아이 $150, 둘째 $140, 셋째 $130, 11월 SAT II 시험 준비학생 $100(교재비 $50 별도) ☎ (310)347-8765 이헬레나 교장

◈ 성모회 피정

- 일시 : 10월4일(토), 성모신심 미사 후
- 강의 : 한상만 토마스 신부
- 대상 : 성모회, 자모회, 소공동체, 원서회, 안나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미리 신청하십시오.
- 회비 : $10, 회장 오혜숙 루시아, 행사부장 김정심 크리스스티나 ☎(310)490-9662. 사무실에도 신청서 비치.

◈ 주일학교(Sunday School) 오픈 하우스

- 일시 : 10월5일(주일)
- 학부모와 교사의 만남 : 오전 9시30분~10시30분, 강당
- 수업참관 가능 : 오전 10시45분~11시, 교실
-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히 2학년 첫영성체 교리반 학부모님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카메라 사진 특강

- 일시 : 10월5일(주일) 오후 1시~2시, 회의실
- 대상 : 사진촬영에 관심이 있고, 디지털 카메라에 흥미가 있으나 자세한 작동법을 모르는 초보자, 사진을 좀 더 잘 찍기를 원하는 교우들.

* 문의 : 이재용 안드레아 홍보부장 ☎(949)502-1213

◈ 제38회 한국의 날 장터에 '백삼위 음식 부스' 운영

- 일시 : 9월25일(목)~28일(주일) * 백삼위 대건회 주관
- 장소 : LA서울국제공원(구 아드모어 팍)
- 목적 : 백삼위 어린이놀이터 조성 기금 마련
- 참가음식 : 메추리구이 외 6종 • 기금 목표액 : $25,000
- 음식 바자회 티켓 판매 $10 : 주일(특전)미사 전후
- 각단체 및 교우들의 적극 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 봉사 일정 : 25일(목)-토런스동/북구역, 26일(금)-하버/카슨·토런스 남구역·원서회, 27일(토)-P.V.구역·배론청년회·원서회, 28일(일)-토런스 서구역·배론청년회·원서회 • 자원봉사자들 연락주세요. 대건회 정동호 하상바오로 회장 ☎(310)780-9055

◈ 장례절차에 관한 세미나

- 일 시 : 10월19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문 의 : 사회복지분과 박홍룡 요셉 위원장 ☎ 283-5879

◈ 요셉회/안나회 가을 온천관광

- 때,곳 : 10월28일(화),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형제 자매님들의 신청 바람. 55명 정원
- 회비 : 교우 $15, 외부인 $25
- 신청 : 이영희 카타리나 회장 ☎(310)518-1736
  권영옥 루치아 총무 ☎(310)720-2876
- 봉사자들을 기다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9월21일(주일) : 장터 음식 부스 2차 데모행사(주일)
  대건회가 한국의 날 장터 음식부스를 실습하는 친교자리. 메추리 구이, 떡볶기. 파전 등 5가지 판매. 한접시에 $5, 메추리 3마리 $10, 음식바자회티켓 $10.
- 9월28일(주일) : 낮미사 후 장터 백삼위 음식부스에 가서 식사합시다. 성당에선 점심나누기 친교자리가 없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숙경 권태만 김상억 김성헌 김영미 김정웅 김주량 김칠민 김충섭 남명자 노천수 민봉식 박기돈 박상준 박순자 배기엽 신순철 안민수 엄지선 육재민 이경용 이명선 이인두 이일길 이일형 이효세 임현기 장수창 정규숙 정연영 정인식 정지숙 조경림 최원석 최의수 최헌영 한길선례	합계 : $3,730
미사헌금 : $3,123.31		

성전헌금	강숙경 권태만 김성헌 김영미 김주량 김칠민 김충섭 남명자 노천수 민봉식 박상준 박순자 배기엽 신순철 육재민 이경용 이일형 이효세 임현기 장수창 정규숙 정연영 조경림 최원석 최의수 한길선례	합계 : $2,375
감사헌금 : 김해경, 이병우		재활용 : $115

이 주간의 축일(9월21일~9월27일)

축하합니다.

- 21일 : 마태오 사도, 요나 예언자, 마우라 동정녀, 제롤포 순교자, 이사악 주교 순교자, 이피제니아 동정녀
- 22일 : 토마스 주교, 상티노 주교, 펠릭스 3세 교황, 이라이스 동정 순교자
- 23일 : 데클라 동정 순교자, 리노 교황 순교자, 폴리세나 동정녀, 산티파 동정녀
- 24일 : 파치피코 증거자, 제레마로 원장, 티르소 순교자
- 25일 : 클레오파스 순교자, 막시모 순교자, 솔렘니오 주교, 피르미노 주교 순교자, 퓜베르토 주교, 타타 순교자
- 26일 : 고스마 순교자, 다미아노 순교자, 치프리아노 순교자, 가브리엘 라어망 순교자, 유스티나 동정 순교자
- 27일 : 빈첸시오 사제, 엘지알 증거자, 힐트루다 증거자, 요한 마르코 주교, 마르첼로 증거자

남가주 소식

◈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협회 제12회 정기 협회전시

- 일시 : 9월25일(목)까지 전시
- 전시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Wilshire Bl. #502 LA)
- 백삼위 본당 김윤진 카타리나 자매 등 30명 작가 출품
- 지도 : 한상만 토마스 신부
- 문의 : 회장 김원실 베리디나 ☎(213)365-8285

◈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동호회 제2회 정기연주회

'유빌라테'는 작년에 결성된 가톨릭 성가를 사랑하는 음악인들의 모임으로 창단연주에 이어 올해 두번째 연주회를 갖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장소 : 9월26일(금) 오후 7시30분, LA 성 빈센트 성당(621 W. Adams Bl.)
- 연주곡목 : 모차르트의 미사 'Brevis' K.65 외-.
- 지도신부 : 박상대 마르코 신부, 지휘 : 김경숙 클라라

◈ 제 3회 남가주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 때, 곳 : 9월28일(주일) 오후 3시30분, LA 대교구 주교좌 대성당(555 W. Temple St. LA)
- 주례 : Gabino Zavala 샌게이브리얼 지역 주교, 남가주 한인사제단 공동 집전
- 주관 : 성 마리아 엘리사벳 성당(롤랜하이츠)

◈ 루르드/파티마 성모발현 성지 순례

- 일 정 : 10월30일(목)~11월8일(토), 11박 12일
- 순례지 :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 경 비 : $2,795(뉴왁 공항 출발 기준)
- 주 관 : 평화신문사 ☎(718)762-6500
- 신 청 : 코리아나 여행사 ☎(718)460-9400

이번 주 단체 모임

9월 정기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다음 주 단체 모임

한국의 날 장터 음식부스	오전 9시~밤 10시, LA 서울국제공원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배태임 안나 781-9199 9/12(금)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정기은 비오 618-9775 9/13(토) 오후 7시
	3	한길선혜 스콜라스티카 782-1025	문지숙 엘리사벳 375-8472 9/19(금) 오후8시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박정애 소화데레사 618-8499 9/5(금) 할리웃보울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박재철 요왕 530-3699 9/21(일) 오후 5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9/15(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오창애 안나 326-1519 9/19(금) 오후 7시45분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이경수 헬레나 530-0357 9/17(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젬마 214-2290	강은진 젬마 214-2290 9/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이용식 베드로 516-0818 9/12(금)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1	정정숙 율리아 365-4721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최기남 야고보 891-1527 9/13(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9/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재일 미카엘 544-9460 9/19(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김종문 아놀드 377-0450 9/19(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

한국에 천주교가 정착하기까지는 여러 번 시도가 있었다. 임진왜란(1592~1598) 때 예수회 소속 세스페데스 신부가 소서행장 및 많은 천주교 신자들로 구성된 침략군의 종군신부 자격으로 경상남도 진해에 상륙하여 미사를 봉헌하며, 포로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등 선교를 시도하였으나 크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병자호란(1637~1638) 때 중국 선양에서 볼모로 잡혀있던 소현세자 역시 천주교를 접하고 호감을 가졌지만, 귀국 후에 잇따른 그의 죽음으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18세기 말, 이벽을 중심으로 남인학자들 몇몇이 학문적 연구로 천주교 신앙을 접하면서, 이승훈(베드로)이 1784년에 북경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조선 땅에 천주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신분과 지위의 구별 없이 수많은 평신도의 열성과 중국, 프랑스에서 밀입국한 선교사들에게 의해 조선 천주교회는 성장하여 나갔다. 그러나 신해박해(1791년)를 시작으로 신유박해(1801년), 기해박해(1839년), 병오박해(1846년), 병인박해(1866년) 때까지 1만 명이 순교하였다. 이들 중 79위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복, 24위는 1968년 10월 6일에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이들 103위 복자는 모두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을 맞아 방한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시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천주교회는 물론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매년 9월 20일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을 지낸다.

⊙ 황사영 백서 (黃嗣永 帛書) ⊙

황사영(알렉산더)은 초기 교회의 지도자급 신자 중의 하나로서 창원 황(黃)씨이며 남인(南人)의 명문(明門) 출신이다. 부친 황석범과 모친 이씨 사이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1790년(正祖 14년) 16세의 어린 나이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다. 명문의 배경과 출중한 재주로 탄탄한 출세의 길을 앞둔 청년 황사영은 학문의 길을 위해 찾아 든 정약종의 문하에서 일생일대의 변화를 겪는다. 천주교인으로 명도회(明道會) 회장이던 약종은 사영의 빼어난 재능에 반해 장차 교회의 큰 일꾼으로 삼을 것을 다짐한다. 진사시에 합격한 이듬해인 1791년 그는 이승훈(베드로)에게 천주교 서적을 얻어 보는 한편, 정약종(아우구스티노), 홍낙민(루카) 등과 함께 천주학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나눈 끝에 천주학의 오묘한 이치에 매료되어 입교한다. 이로써 그는 부귀공명이 기다리는 벼슬길을 마다하고 죽음의 길로써 진리를 찾는 고통스런 일생을 선택했다.

그는 1795년에 입국한 주문모 신부를 만나 봉행(奉行)하며 명도회의 주요 회원으로 활발한 전교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1801년 신유박해는 수많은 교우들을 희생시켰고 정약종 등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됐다. 역시 체포령이 내려진 황사영은 박해의 손길을 피해 서울을 빠져 나와 상복 복장으로 충청도 제천 배론으로 숨어든다. 황사영은 1평 남짓한 토굴을 파 숨어 지내며 조선 교회가 겪고 있는 박해 상황에 낙심과 의분을 품고 북경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적어 황심(토마스)에게 건넨다. 옷 속에 이 비밀문서를 품고 가던 황심이 체포됨으로써 백서는 북경 주교에게 전해지지 못한 채 사전에 발각되고, 황사영도 9월 29일 체포된다. 이것이 유명한 황사영 백서 사건이다. 조정은 그를 나라를 팔아넘기려는 대역 죄인으로 11월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참한다. 이 때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이 여파로 조정은 한층 강한 박해를 시도한다.

귀중한 교회사적 자료인 이 백서는 가로 62센티미터, 세로 38센티미터의 흰 명주천에 작은 붓글씨로 쓰였고, 모두 1백22행, 1만 3천3백11자에 달하는 장문으로 되어 있다. 백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서, 첫째는 신유박해 중 순교한 주문모 신부 외 30여 명의 빛나는 사적을 열거하고, 둘째는 박해의 동기와 원인이 벽파와 시파 간의 골육상잔(骨肉相殘)의 당쟁이었음을 피력하고, 세 번째로는 조선 교회의 회생과 교우들의 학살에 대한 대비책으로 외세에 원조를 청하는 내용이다. 백서의 원본은 조정의 의금부에 보관되었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옛 문서를 정리하면서 발견돼 뮈텔 주교에게 보내졌고, 뮈텔 주교는 1925년 한국 순교자 79위 시복식 때 이를 교황 비오 11세에게 봉정하였고, 현재는 교황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